멀기만 한 '광주 김치' 세계화

업체 시설 노후·경영 악화로 지난해 수출 1만2000달러 그쳐

광주·전남 농수산식품 실적 저조 … 품목 다변화로 수출길 터야

광주시가 집중 육성하고 있는 김치 산업의 수출실적이 전국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수산물유통공사(aT)가 최근 발표한 '2009년 지역별 농림수산식품 수출실적(10만달러 이상)'에 따르면 광주는 지난해 7880만달러, 전남은 1억6290만달러를 수출했다.

특히 광주의 경우 김치 수출액이 1만2000달러로 대구, 울산, 제주, 충북, 대전, 강원 등과 함께 10만달러 미만 수출지역에 포함됐다. 지역 수출업체의 시설 노후화와 경영악화로 수출실적이 미미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또 지난 2005년 기생충알 파동으로 김치 산업계가 심각한 타격을 입은 것도 한 요인이다.

수출 규모로 광주는 대구(2600만달러), 제주(7300만달러)에 이어 전국에서 세번째로 수출액이 적었다. 전남의 수출액 규모는 9위였다.

이처럼 수출액이 적은 것은 품목이 소수인 데다 편중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광주와 전남 지역은 16개 시·도 가운데 지난해 10만달러 이상 돼지고기를 수출하지 못한 지역에 포함됐다.

도농복합지역인 광주는 집계대상 12개 품목 가운데 김치· 화훼·가금육(닭·오리의 고기) 등 7개 품목이 10만달러 미만 수출실적을 기록했다.

전남도는 품목별로 고루 수출실적은 있으나, 인삼(20만달러), 가금육(닭·오리, 480만달러), 김치(340만달러),버섯(200만달러) 등은 타 지역에 비해 수출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풍부한 해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전남 지역의 수산식품 수출액도 초라하다. 수산식품 수출액은 8800만달러로 부산(6억4200만달러)·경남(1억2000만달러)에 크게 못미쳤다. 지역에 농수산물 가공업체들이 없는데다 이 마저도 영세해 수출길을 열지 못한 탓이다.

부산·경남지역 수출이 활기를 띤 것은 지역에 대형 수산물 유통센터와 매장 등 대규모 판로가 확보돼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신선농식품(김치·채소·화훼 등)의 경우 광주의 수출실적은 180만달러로 전국 최하위였고 전남은 5930만달러로 전국 5위를 기록했다. 반면, 전남의 과실수출액은 2500만달러로 충남(3600만달러), 경북(3470만달러)에 이어 전국 3위를 기록했다.

한편,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농림수산식품 수출액은 48억900만달러로 이 가운데 신선농식품은 7억3900만달러, 수산식품은 15억1100달러였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본부세관 '사랑 나눔' 광주본부세관 직원들로 구성된 '행복나눔 봉사단'이 28일 본부세관에서 '사랑의 동전 모으기 운동'으로 적립한 동전을 한데 모으고 있다. 직원들은 이날 모금한 40여만원을 광주 결식아동 돕기에 써달라며 굿네이버스 광주지부에 전달했다. 〈광주본부 세관제공〉

소셜 네트워크로 고객과 통한다

백화점 트위터 등 본격 운영

주요 백화점이 '파워 소비자'로 떠오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이용자들과의 소통과 접촉을 강화하려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을 앞다퉈 운영하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은 지난 10일부터 시범 가동해온 공식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내달 12일 정식으로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본사 미래기획팀에 SNS 전담 직원 2명을 두고 트위터, 페이스북 계정과 유튜브를 관리하며 전 점포 영업총괄팀에도 한 명씩 전담자를 지정해 트위터를 통한 고객 의견을 점포 경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현대백화점은 4월 중순부터 본사 커뮤니케이션팀 주관으로 공식 트위터 계정을 열고 운영 중이다. 팔로어(follower) 1400여 명을 둔 이 트위터는 세일 행사나 이벤트, 문화공연 등 백화점에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신세계백화점도 지난주부터 본점과 강남점, 센텀시티점 등 8개 점포마다 트위터 전담 직원 2명을 두고 점포별 트위터를 운영, 문의나 불만, 제안 등을 접수하고 답변해 준다. /연합뉴스

'햇살론' 이틀간 270명에 18억 대출

1인당 평균 673만원…10등급·무등급자 대출 전무

서민전용 대출상품인 '햇살론'이 출시 이틀간 18억원이 넘는 대출실적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신용등급 최하계층인 10등급 대출자가 전무하고 일부 서민금융사들은 햇살론 취급조차 하지 않아 보완책 마련도 필요한 상황이다.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햇살론이 출시된 26일 이후 이틀간 270명에게 18억1800만원의 대출이 이뤄졌다. 1인당 평균 대출금액은 673만원이며, 전원 생계자금 대출을 받았다.

취급기관별로는 농협이 148명, 9억8600만원을 대출해 전체의 절반이 넘을 정도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신협 53명(3억7200만원), 저축은행 40명(2억6000만원), 새마을금고 21명(1억4800만원), 수협 8명(5200만원) 등이다.

그러나 신용등급이 가장 낮은 10등급과 무등급자에 대한 대출은 한 건도 성사되지 않았다.

햇살론이 종래 40%대 고금리로 대출을 받아온 저신용자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신용등급 최하층에는 도움의 손길이 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다.

지난 26일부터 상품이 출시됐지만 일선 창구에서 대출 업무 자체를 취급하지 않는 서민금융기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4650억 '잠자는 주식' 찾아가세요

예탁결제원 광주지원 내달 말까지 주인찾기 캠페인

"주인을 찾지못해 잠자고 있는 주식을 찾아가세요"

한국예탁결제원 광주지원은 "서울 여의도 본원이나 부산·대전지원과 함께 28일부터 내달 말까지 '미수령 주식 찾아주기 캠페인'을 벌인다"고 밝혔다. 대상주식은 모두 2억2290만주로 주인이 찾아가지 않아 자체 보관 중인 상장·비상장 주식이다.

이들 주식의 평가액은 시가로 4650억원(비상장법인은 액면가 기준), 실소유자는 법인을 포함해 2만6000명에 이른다.

예탁결제원은 시가 기준 10만원 이상 미수령 주식 보유자 1만5000명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전산망을 이용해 주민등록법상 실제 주소지로 미수령 주식 내역과 수령절차를 통지해준다. 미수령 주식을 찾고자 하는 주주는 신분증과 증권카드(본인 명의) 등을 지참하고 예탁결제원 서울 여의도 본원이나 부산, 광주, 대전에 있는 지원을 방문하면 된다.

온라인으로 보유여부를 확인하려면 예탁결제원 홈페이지(www.ksd.or.kr) '주식찾기' 코너를 이용하면 된다. 캠페인 기간 예탁결제원 본원 1층에 전용창구와 전담 안내전화(02-3774-3600)도 운영된다.

미수령주식은 예탁결제원에 주식을 예탁하지 않고 투자자가 직접 갖고 있다가 이사 등으로 연락이 닿지 않아 무상증자나 주식배당으로 배정된 주식을 찾아가지 못한 경우에 발생한다. 우리사주를 받았거나 매수한 뒤 잊어버린 경우나 상속받은 사실을 모르고 지낼 경우도 해당될 수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금융위, 은행 랩어카운트 허용 유보

정부는 은행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랩어카운트 등 투자일임업 진출을 당분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2일 은행의 지배구조 개선, 업무범위 정비 등을 골자로 한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금융위는 증권사의 랩어카운트와 같은 투자일임업 진출 허용문제에 대해 최근 은행의 업무범위, 국제적 논의동향 등을 보면서 추후에 검토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은 대부분 소속 지주회사 내에서 증권업·자산운용업을 겸업하고 있어 내부겸영을 해야할 필요성이 그리 크지 않다"며 "투자일임업과 유사한 특정금전 신탁업을 영위하고 있어 은행의 프라이빗뱅킹(PB) 영업 등에도 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기업어음을 인수해 시장에 판매해주는 단기금융업 허용 요구에 대해서도 은행의 업무범위 등에 관한 국제적 논의 동향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 추후 과제로 미뤘다. /연합뉴스

어윤대 KB금융 회장 급여 15% 자진 삭감

어윤대 KB금융지주 회장이 이달 중순 취임하자마자 급여를 15% 삭감했다.

어 회장이 비용 절감을 위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자 국민은행 등 계열사 임원들도 급여를 자진 삭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어 회장은 이달 첫 급여부터 15% 삭감했다. 어 회장은 지난 13일 열린 취임식에서 비용 절감을 위해 회장 급여를 일부 줄이는 등 솔선수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보해 복분자 복날 특수 '톡톡'

판매량 평소보다 145% 증가

보해양조(주) "초복인 지난 19일 보양식업소와 할인매장의 복분자주 판매량을 분석한 결과 1일 평균 판매량이 평소보다 145% 증가해 하루 3만3000병 이상의 복분자주가 더 팔렸다"고 28일 밝혔다.

삼계탕, 장어구이 등 보양식업소 판매량은 초복에 140% 이상 증가했다. 특히 삼계탕용 생닭과 연계 판매행사를 진행한 할인매장에서는 지난해에 비해 생닭 판매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복분자주 매출도 190% 가량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인기는 복분자주가 '웰빙주'로 각광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해 측은 설명했다. 또 '복날은 복분자주 마시는 날'이라는 콘셉트를 내세운 '복(伏)-복(覆) 마케팅' 효과도 컸다.

보해 관계자는 "무더위가 말복인 8월 중순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매출이 수직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